

# 생일날 생일도 들어가면 여객선 '무료'



생일을 맞이한 주인공이 '가고 싶은 섬, 생일도'에 들어가면 여객선을 무료로 승선할 수 있다. 완도농협(김미남 조합장)은 "8월 1일부터 생일을 맞아 생일도에 들어가는 주인공을 위해 완농페리호(약산 당목항→생일 서성항) 무료 승선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객선 무임 승선 이벤트는 가고 싶은 섬 관광 활성화 및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완도군과 완도농

협이 협약하여 실시하고 있다. 생일도에 가기 위해서는 약산 당목항에서 여객선(완농페리호)을 이용하며 승선 요금은 왕복 6,600원이다.

생일 확인은 주민등록증 소지자에 한해 발권 시 주민등록증 생일을 기준으로 하며 차량 도선료는 제외한다.

생일도는 2016년도에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되어 국내 최대 생일 케이크 조형물과 리조트

## 완도농협, 페리호 생일 축하 이벤트 실시 도착하면 여객선 부두 전광판 통해 축하도

형 관광농원 생일섬길과 명 때리기 좋은 곳 등이 알려지면서 매년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9년에는 33,613명이 방문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7월까지 28,000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으며, 8월 중에는 작년 한해 방문객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완도농협은 8월부터 급증하는 방문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선 추가 투입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일도 숙박객 편의를 위해 하나마트 영업시간도 오후 8시까지 연장해서 운영 중이다.

한편 완도군이 실시하고 있는 생일도 방문객들을 위한 여객선 부두 전광판 이벤트도 눈길을 끈다. 생일을 자축하고 싶거나 생일도 방문을 추억으로 남기길 원한다면 여객선이 부두에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축하 또는 환영 문구를 전광판에 노출하는 기념 이벤트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여객선 부두에 설치된 국내 최대의 케이크 조형물에서 감미롭게 흘러나오는 축하 노래를 들으며 조형물을 배경으로 기념사진 촬영도 할 수 있다.

축하 노래는 다문화 가족을 위해 외국어 버전으로도 들을 수 있다.

사연 신청은 평일(월~금) 10:00~17:00에 생일면사무소(061-550-6675)에 신청하면 된다. 방문 하루 전 신청, 당일 접수는 불가하다.

완도=김광수 기자



## 장흥군, 지역 생산자 단체와 소통간담회

남도드림 생산자 협동조합 회원 현장 애로 사항 청취

장흥군은 지난 5일 남도드림 생산자 협동조합 대표 문상영 등 20여 명의 회원들과 공동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남도드림 생협 조합원 수의 증가와 협동조합의 사회적 기업 전환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 그간의 직거래 정책 성과를 공유하는 등 조합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사업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남도드림 생산자 협동조합은 260여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토요시장 특판장과 정남진 장흥물 위탁 운영, 농특산물 공동 직거래 등 장흥군 직거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고통 받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1천3백만 원 상당의 농특산물과 장흥군 체육진흥을 위한 기금 5백만 원을 기탁하여 사회적 모범을 보이기도 하였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직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흥군 우수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면밀히 검토하여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 "해남서 기업회의 하면 인센티브 지급"

해남군, MICE 인센티브 신설·관광 인센티브도 확대

해남군이 관광 인센티브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MICE 유치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한다.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지급하는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모객인원을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소규모 단위 여행상품에 대해서도 해남행을 적극 유인할 계획이다.

단체모객인원 10명으로 완화 MICE 지원대상, 30명 이상 지역 관광활성화 도모 계획

특히 지원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했던 각종 회의 및 행사 개최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MICE 유치 인센티브도 추가 시행한다.

MICE 인센티브 지원대상은 해남군에서 회의, 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자 및 단체로 당일 또는 숙박을 하고 음식점·쇼핑·체험활동·관광지 방문 중 17지만 실시

하면 된다. 인센티브는 30명 이상이 당일 행사를 개최하면 1인당 5,000원, 1박과 2박은 20명 이상일 때 1인당 1만원과 1만 5,000원을 각각 지급한다.

군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관광 트렌드에 발맞춰 올해 실시한 여행업체 간담회 등에서 건의된 사항을 반영해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 보완하게 되었다.

이번 인센티브 확대로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체 지원과 함께 방문객의 증가를 유도해 지역 관광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여행지 방역 관리와 함께 관광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변경된 인센티브 기준을 홍보하기 위해 전구 지자체, 전국교육청, 한국관광협회, 한국일반여행협회, 한국관광공사, 지역 내 여행업체,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며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 강진군 마량면, 경로당 보조금 교육 실시

5일간 17개소 직접 방문

강진군 마량면(면장 강한성)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각 마을 경로당 17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경로당별 노인회장, 총무, 회원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 정산 및 회계 교육 등을 실시했다.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 등 집행 방법과 집행항목별 지원 가능 비용과 지원 불가 항목 등 부적정 집행 사례를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안내하였다. 특히 운영비, 냉난방비, 급식비 등 보조금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 어르신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추진했다.

이와 아울러 장마철과 불볕더위,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등에 대비한 대처요령 등을 설명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급식실 태도 점검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하였다.

강한성 면장은 "관내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 기능 강화와 운영 활성화에 힘쓰는 한편, 자주 들러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모든 면면이 행복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 진도군, 부동산 소유권 특별 조치법 시행

재산권 행사 불편사항 해소 기대...2022년 8월 4일까지

진도군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지난 5일부터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사항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교환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이다. 단, 불법 건축물과 소송 진행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특별조치법은 과거 특조법에 비해 보증 절차가 상당 부분 강화되었으며, 특히 보증인 5명중 관내 법무사 4명 중 1명 이상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보증 수수료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농지법, 부동산등기 관련 과징금(과태료), 토지분할 허가 규정 적용된다.

신청을 원할 경우 읍 면장이 위촉한 5명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군청 민원봉사과에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하면 보증취지와 사실관계 등 조사 후 2개월 간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진도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진도=조상용 기자



# 함평천지농특산품

친환경 농업의 메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함평천지 농특산품을 만나보세요.

**함평 로컬푸드 직매장 Tel 061-324-8331**






